

지난 4월 6일, 국내 최초의 고양이 역장이 탄생했다. 고양이 이름은 다행이, 그리고 다행이가 역장으로 취임한 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다.

다행이는 사실 버려진 길고양이였다. 지난 1월에 구조될 당시 다행이는 오른쪽 앞발이 잘려서 피를 흘리는 상태였다고 한다. 다행히도 치료가 잘 되어서 상처가 후유증 없이 아물었고, 그 후에 일정한 적응 기간을 거친 후에 역곡역으로 보내졌다.

흥미로운 것은 다행이를 입양한 역곡역의 역장 김행균 씨와 다행이의 묘한 공통점이다. 김행균 씨는 지난 2003년에 영등포역에서 근무를 하던 중 어떤 아이를 구하다가 사고를 당했으며, 그 결과 양발을 잘라야 했던 것이다. 그 후로도 사회 봉사 활동을 계속 이어갔던 김행균 역장은 "버림받고 상처 입은 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하는 것이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약자에 대한 보호를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명예역장에 임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ombudsman']

‘다행이’라는 이름은 시민들의 공모로 지어졌는데, 끔찍한 일을 당하고서도 무사히 살아남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이라는 뜻을 담았다고 한다. 다행이의 사료 값도 시민들의 성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다행이는 현재 역곡역 이곳저곳을 누비면서 역을 이용하는 손님들과 만나고 있다.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어서 꾸준히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김행균 역장은 업무가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 청소년들에게 역장 사무실을 개방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행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왕따와 폭력문제가 해결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단어 연습



빈칸에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세요.

- 수술은 끝났지만 아직 _____이/가 좀 있어서 운동을 시작하기에는 이릅니다.
 - 입원
 - 증상
 - 병원비
 - 후유증
- 현장이 너무 _____어서/아서/여서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 끔찍하다
 - 지나치다
 - 무사하다
 - 꾸준하다
- 그 부부는 아이가 이미 둘이지만 한 명을 더 _____고 싶어했다.
 - 탄생하다
 - 개방하다
 - 입양하다
 - 해결하다

내용 이해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1. '다행이'는 _____.
① 역곡역 역장이 된 고양이 이름이다. ② 고양이를 구해준 사람 이름이다.
③ 김행균 씨가 지어준 이름이다. ④ 운이 좋은 고양이라는 뜻이다.
2. 다행이와 김행균 씨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① 같은 병원에 입원했었다 ② 김행균 씨가 다행이를 입양했다
③ 김행균 씨가 다행이를 구해줬다. ④ 다행이가 역곡역에 자주 놀러 왔다
3. 다행이와 김행균 씨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① 역곡역에서 산다 ② 병원에 입원해 있다
③ 아이들을 좋아한다 ④ 크게 다친 적이 있다
4. 다행이를 역장으로 임명한 것은 _____.
① 관광객을 모으고 싶었기 때문이다.
② 다행이가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아서였다.
③ 김행균 씨가 고양이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④ 약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돕자는 의미에서였다.
5. 다행이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①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다.
② 치료를 받은 후에 건강해졌다.
③ 김행균 역장이 사료 값을 댄다.
④ 역곡역에 가면 만날 수 있다.

요약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세요.

보호 소중함 역장 치료

'다행이'는 역곡역의 _____이/가 된 고양이이다. 다행이는 길고양이였는데 큰 사고를 당했다가 _____을/를 받고 회복되었다. 그리고 역곡역에서 일하는 김행균 씨에게 입양되었다. 김행균 씨는 다행이를 입양하면서 이 일이 생명의 _____을/를 알게 하고 약자에 대한 _____의 마음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금도 역곡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행이를 만날 수 있다.

답

단어 연습

1.④ 2.① 3.③

내용 이해

1.① 2.② 3.④ 4.④ 5.③

요약

역장, 치료, 소증함, 보호